

코다이 음악교수법이 초등학생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정 성 배*

목 차

I. 서 론

- | | |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문제 |
|-----------------|---------|

II. 이론적 배경

- | | |
|--------|-------------|
| 1. 창의성 | 2. 코다이 음악교육 |
|--------|-------------|

III. 연구방법

- | | |
|---------|-------------|
| 1. 연구대상 | 2. 연구도구 |
| 3. 연구절차 | 4. 음악교육프로그램 |
| 5. 자료처리 | |

IV. 결과해석

- | | |
|--------|---------|
| 1. 유창성 | 2. 독창성 |
| 3. 상상력 | 4. 자료처리 |

V. 논의 및 제언

- | | |
|-------|-------|
| 1. 논의 | 2. 제언 |
|-------|-------|

※ 주제어 : 창의성, 유창성, 독창성, 상상력, 융통성,
 코다이 음악프로그램

* 前)성화대학 아동복지과 조교수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음악은 초등학생기에 있어 매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어릴 때부터 발달적으로 적당한 음악활동을 경험시켜 줌으로써 여러 발달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된다. 또한, 음악은 초등학생들의 정서·언어·신체·인지발달뿐만 아니라 창의성 발달 등의 여러 측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교육활동으로의 인식과 함께 초등교육에 있어 중요한 수단이 되어 왔다.

특히, 창의적인 표현을 위한 음률활동은 초등학생으로 하여금 기존의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사고에서 벗어나 풍부한 감성과 다양한 사고와 창의적인 신체적·언어적 표현을 가능하게 하며, 초등학생의 창의성 신장을 위한 음률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은 개인의 잠재력을 계발시키고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하며 창의적인 사고와 표현을 돕는 역할을 한다(염현경, 2001, pp. 215-234).

결국, 초등학생 음악교육의 목적은 창조적인 능력을 계발하는 것이며, 창의적인 능력은 즉흥적인 음악 활동 속에서 자연히 길러진다(이홍수, 1990, pp. 354-356). 이러한 음악활동을 통해 새롭고 독특한 아이디어의 표현방법을 학습하며 창의성을 계발할 수 있다.

초등학생기는 창의성 계발에 있어 가장 적절한 시기이다. 창의성 계발의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이 시기에 쉽게 적응하고 일상화 할 수 있는 음악을 통하여 항상 기쁨과 만족을 느끼며 지혜롭고 독창적인 사고를 표출해 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천신현, 1989, p. 2). 따라서 초등학생기에 상상력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이나 음악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줌으로써 미적 감각을 탐색하고, 광범위하게 사고하는 과정을 유발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코다이(Zoltán Kodály, 1882-1967)의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초등학생에게 적용하여 초등학생의 음악적 창의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아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창의성 계발을 위한 음악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구성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I. 코다이 음악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 I -1. 코다이 음악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유창성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 I -2. 코다이 음악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독창성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 I -3. 코다이 음악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상상력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 I -3. 코다이 음악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융통성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창의성

1) 창의성의 개념

창의성이란 개념이 과거 음악이나 미술 등과 같은 예술분야의 소수 특정인이 지닌 뛰어난 능력을 의미했던 것이 일반화된 사실이었다. 그러나 1950년대 길포드(Joy Paul Guilford, 1897-)¹⁾가 미국 심리학회에서 창의성의 중

1) 유명한 미국의 심리학자. 1927년 코넬대학에서 학위를 받았고, 현재 남캘리포니아 대학 명예 교수이다. 지능 및 성격에 관한 독자적인 모델을 제창하였으며, 확산적 사고·수렴적 사고 등의 지능구조론은 창조적 사고의 연구에 많은 시사를 주었다(<http://www.empas.com>).

요성에 관해 연설한 것을 계기로 창의성이란 선천적으로 타고난 소수 개인의 특성이라기보다는 계발 가능하다는 견해가 지배하게 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창의성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길포드는 창의성이란 “인간의 지적 요인과 정의적 요인을 모두 포함한다고 하였는데, 그 가운데 지적 요인은 지능 검사로 측정되기 어려우나 지능의 한 중요한 측면인 동시에 인간의 보편적인 잠재력이라고 하였다. 또한, 정의적 요인은 창의적 행동을 발휘하게 하는 개인의 인성적, 기질적 특성이며, 학교에서의 교육적 훈련을 통해 계발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임선하, 1993, p. 23-31에서 재인용).

Pagano는 창의성이란 “인간의 지적 특성과 정의적 특성으로 구성되며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서 창의적인 결과를 산출하는 것”(Pagano, 1979, p. 15)이라고 하였으며, 이는 Guilford와 유사한 견해로 창의성을 지적인 특성과 정의적 특성의 구성으로 보는 견해이다.

Torrance는 창의성이란 “몇 가지 기술, 능력, 동기 등의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에서 작용하는 것”(Torrance, 1979, p. 185)이라고 하여, 창의성은 다양한 요인들이 문제 해결 과정에 작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윤종건은 창의성이란 “평범한 것 이상의 고차원적 사고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여러 상황이나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자기표현의 과정”(윤종건, 1993, p. 13)이라 하였다.

박아청 역시 “고차원적인 사고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당면하는 여러 사태나 문제를 새롭게 특유한 방식으로 해결해 가는 활동”(박아청, 1992, p. 154)으로 창의성을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여러 연구자들의 정의를 종합해 볼 때, 창의성이란 첫째, 선천적이라기 보다는 계발 가능한 능력이며, 둘째, 지적 요인, 정의적 요인, 동기 요인 등 다차원적 요인들이 서로 상호 작용한 결과물이며, 셋째,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여러 사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자기표현의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창의성의 구성요소

Guilford는 지적 구조 모형을 제시하면서 그 중 확산적 사고(divergent thinking)가 창의성의 사고 기능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창의성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Guilford는 확산적 사고의 하위기능으로 문제에 대한 민감성(sensitivity to problem), 사고의 유창성(fluency of thinking), 사고의 독창성(originality of thinking), 상상력(imagination), 융통성(flexibility), 재정의(redefinition)를 들고 있다(임선하, 1993, pp. 23-31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 창의성의 하위 구성요소로 채택한 유창성(fluency), 독창성(originality), 상상력(imagination), 융통성(flexibility)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유창성이란 특정한 문제 상황에서 가능한 한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산출해 내는 양적인 사고 능력이다. 우리는 흔히 사고의 상황에서 옳고 훌륭한 단 하나의 답을 얻기 위해 긴 시간 동안 머리를 짜내고 고민한다. 이 요소와 관련된 학습 경험은 어떤 대상이나 현상들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연상해 보기, 특정한 주제에 대해 일단 떠오르는 생각을 모두 표현해 보기, 특정한 문제상황에서 가능한 해결방안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제시해 보기 등이 있다.

독창성은 기존의 것에서 탈피하여 참신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산출해 내는 사고 기능이다. 창의성 사고의 이상적인 목표는 사고의 독창성을 추구하는데 있다. 이러한 사고는 기존의 사고 방식이나 다른 사람들의 문제 해결 방식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산출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구안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에 의해 가능하다. 이 요소와 관련된 학습경험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은 생각하기, 기존의 생각이나 사물을 부정하고 생각하기, 기존의 생각이나 사물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여 재조직하기 등이 있다.

상상력이란 과거의 경험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의 행동을 계획하도록 하는 새로운 표상을 만드는 능력이다. 상상력은 현실의 창조적 반영으로 상상력이 발달하려면 이전의 경험이 축적되어야 하고 여러 다른 심상을 새로운 상황 속에서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또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변화를 깨닫는 능력의 발달이 필요하다.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심리학적 경험 중의 하나가 상상력으로, 상상력은 유아기에 나타나 아동기를 거쳐 형성되며, 창의적 사고력의 원동력이 된다.

융통성이란 고정적인 사고방식이나 시각 자체를 변환시켜 다양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사고기능이다. 흔히 우리는 사회일반의 지배적인 사고방식이나 자신에게 익숙한 관점에만 고착되어 문제를 해결하거나 결론을 내리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경직되고 상투적인 방식으로 사고를 하게 되면 발상의 진전을 이룰 수 없게 되어 진부한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된다. 고정적인 사고의 틀을 깨고 발상자체를 전환시켜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생각하는 것은 정답이 정해져있지 않은 실생활 장면의 복합적인 문제 상황에서 특히 요구되는 것으로 유창한 사고뿐만 아니라 독창적인 사고의 관건이 된다. 이 요소와 관련된 학습경험은 서로 관계가 없는 듯한 사물이나 현상들 간의 관련성 찾기, 문제와 관련된 속성들을 추출하고 속성별로 생각하기, 발상 자체를 전환시켜 다양한 관점을 적용시키기 등이 있다.

3) 음악교육과 창의성

음악활동이 초등학교생의 창의성 개발에 중요한 수단이 되는 이유는 음악 활동은 다른 어떤 활동보다 초등학교생을 즐겁게 해 주기 때문에 노래나 리듬을 통하여 초등학교생들의 마음속에 있는 긴장과 갈등을 해소시키고 정신건강을 발달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초등학교생의 음악적 훈련은 시각, 청각 등을 고도로 발달시키고 생각과 행동의 일치 및 조화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창조적이며, 조직적인 마음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Andress는 “음악교육은 음악에 대한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아동들의 음악에 대한 사랑과 자기표현 능력을 이끌어 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은 창의성 개발에 도움이 된다”(Andress, 2001, p. 4에서 재인용)고 보고하였다.

Tarratus는 “음악적 창의성과 일반적 창의성은 높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음악적 창의성이 증진되면 일반적 창의성도 높아질 수 있다”(Tarratus, 1996,

p. 25에서 재인용)고 주장하였으며, Moore는 “아동들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음을 만들고 계획하는 다양한 수단들을 발견하여 자유롭고 리드미컬한 울동으로 표현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행동들은 학습되지 않은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창의적 사고와 관계가 깊다”(Moore, 1990, pp. 38-42)고 하였다.

한편, Squeglia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적 음악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는데, 이 연구(Squeglia, 1996, p. 8에서 재인용)에서는 “훈련을 받은 학생들이 음악적 창의성에서는 유의한 증진이 나타났으나 일반적 창의성에는 증진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연구자들의 주장에서 나타났듯이 음악적으로 훈련된 아동들은 자제심이 강하고 정신력과 끈기가 발달하여 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는 집중력과 기억력은 물론이고 특히, 창의성을 고도로 발달시킬 수 있게 된다는 면에서 아동 음악교육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다(성진희, 1983, p. 105)

이와같이 창의성과 관련하여 음악활동과 다른 영역간의 통합적인 접근과 같은 다양한 시도의 연구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 코다이의 음악교육

1) 코다이(Zoltán Kodály, 1882-1967)의 교육이론

코다이는 헝가리 태생의 작곡가, 음악교육가, 민족음악가, 지휘자로 헝가리의 민족음악을 연구하고 이를 음악교육에 적용하였다(p. 5~밑에서 4~마지막).

코다이 음악철학은 한마디로 “음악은 모든 사람의 것이다”라는 말로 압축될 수 있다. 이는 음악이 모든 사람의 인격형성에 대단히 중요하며, 모든 아동들이 음악적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Pestalozzi(Johann H. Pestalozzi, 1746-1827)의 교육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인간교육이 학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²⁾

2) <http://kordaly.co.kr>

2) 음악교육의 내용

(1) 노래부르기

코다이 교육에서 기본적인 음악교육의 내용은 ‘노래부르기’인데 코다이는 목소리아말로 음악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가장 즉각적이며 개인적인 방법이라 하였다. 노래부르기에 의해서 음정과 가락을 맞출 수 있는 음악성을 유지시켜주며, 노래를 지도 할 때는 반주 없이 교사의 육성으로 지도 할 것을 제시한다(조흥기, 1990, 요약).

‘노래부르기’ 교수(teaching)를 위한 교재로는 ‘오음음계(Pentatonic Scale)’³⁾로 구성된 민요이며, 그가 사용한 교수방법은 주로 귀도 다렛조(Guido d’Arezzo)⁴⁾의 계명을 응용한 ‘코다이 계명창법(Sol-fa teaching)’과 커웬(John Crrwen)의 손기호를 다소 수정한 ‘코다이 손기호(Hand Singnals)’를 사용하였다. 또한, ‘이동도법’⁵⁾ 계명창을 사용함으로써 조가 바뀌더라도 각 계명 사이의 음정은 일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음정을 느끼며 노래부를 수 있도록 하였다.

코다이의 교육방법에서 계이름 부르기는 악보 읽기와 쓰기의 활동 기반이 되며 음악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 내용의 하나이다. 또한 코다이는 계이름의 첫 문자와 첫소리를 이용한 읽기 방법으로 가창을 지도하였다. 즉, do

3) 5개의 음으로 구성된 음계. 이것에 바탕을 둔 음조직을 펜터토닉(오음법)이라고 한다. 오음음계는 동양을 중심으로 세계에 널리 분포하는데, 편의상 온음적 오음음계(tonal pentatonic scale), 반음적 오음음계(semintonal pentatonic scale), 온음계와 반음계에 구애받지 않는 특수한 오음음계로 나눌 수 있다(<http://www.naver.com>).

4) 중세 이탈리아의 음악교사·이론가. 성(聖)베네딕트파의 수사(修士)가 되어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수도원에서 음악을 가르쳤다. 1025년 『미크롤로구스(Micrologus de disciplina artis musicae)』를 저술하였고, 28년 교황 요한 19세에 의해 로마 교황청에 초빙되기도 하였다. 그의 업적으로는 4선악보·솔미제이션(solmization: 音名唱法)·음계이론의 연구 등을 들 수 있는데, 특히 헥사코드(hexachord: 6개의 음으로 된 온음계적 음계로 중세음악의 기초를 이룸)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착오 없는 솔미제이션과 뮤테이션(mutation: 헥사코드의 바뀌임)을 확립시키기 위하여 “구이도의 손”이라 불리는 교수법을 고안해낸 것으로 유명하다.

5) 이동도법(moveable-do system) : 조성에 따라 으뜸음의 위치가 달라지며, 그 으뜸음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음계의 각 음을 계이름으로 부르는 방법.

는 d로 re로 r로 표기해서 음악 높이를 인지하고 시창을 함께 지도하는 방법을 택하였다(안재신, 1997, pp. 26-28).

[그림 II-1] 계이름 읽기

계이름 표기	do	re	mi	fa	sol	la	ti(si)	do
코다이식 표기	d	r	m	f	s	l	t	d'

또한, 정확한 음정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2부 합창과 제창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2) 리듬지도

코다이 교수법(Kodaly method)은 음악의 여러 요소 중에 리듬부터 시작한다. 다른 음악요소보다 리듬학습을 먼저 하는데 걷기, 뛰기, 손뼉치기, 발구르기, 무릎치기, 허리 굽히기 등의 신체동작에 의해 리듬감을 체득하게 된다. 리듬지도 역시 가창활동과 병행해 노래의 리듬적 특성을 몸으로 느끼게 하며, 초기 학습은 음악에 맞춰 행진하면서 기본 박의 개념을 지도한 후 4분음표 다음에 8분음표로 연결한다.

코다이 교수법에서는 음표의 음가를 음표의 기둥과 기(旗)로만 나타냄으로써 단순화된 악보의 효과를 노리기도 한다. 리듬지도의 주요 특성은 코다이가 채택한 독특한 리듬 음가 음절(Rhythm Duration Syllables)인데 1800년대 프랑스의 슈베(Jacques Cheve)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요즈음도 프랑스에서 사용되고 있다.

(3) 듣기(Listening)

듣기(Listening)는 ‘내청’(inner hearing)이라 불리는 능력의 발달을 위한 기술 중의 하나로서 아동들은 음정(interval)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음정을 ‘음’(tone)과 음 사이의 상호관련성을 찾는 법을 배우고, 노래 전체를 부르거나 마음속으로 부르는 법을 배운다.

코다이 교수법에서 귀 훈련을 위해 많은 연습이 제공되며 비교·음색·기억·내청으로 나뉘어 지도된다.

‘비교’는 음의 높고-낮음, 세고-여림, 빠르고-느림, 그리고 음색에 대한 비교가 그 내용으로서 노래부르기를 통해서 점차 학습된다.

‘음색’은 아동들에게 지도하기를 매우 고급개념으로 보일 수 있으나 코다이는 문답식의 노래게임을 만들어서 목소리나 악기의 음색을 청각적으로 식별해 낼 수 있게 된다.

‘음악적 기억’은 학습될 수 있는 기능이며, 암송창 과정은 이러한 기능을 익히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내청’(inner hearing)은 발성한 음을 생각하는 과정으로 초기에는 작은악절별로 지도하는 것이 좋으며, 아동이 ‘내청’과정에 어려움을 느끼면 잘 아는 노래를 제시해 주고 리듬을 손뼉으로 치도록 지도한다.

(4) 즉흥연주(imporvisation)

즉흥연주(imporvisation)를 위해 아동들에게 최초로 제공되는 악기는 움직일 수 있는 ‘바’(Bar)를 가진 실로폰이 제시되며, ‘솔-미’를 연주하기 위해 2개의 ‘바’(Bar)로 시작해서 음계(Scale) 제시와 일치되도록 또 다른 ‘바’(Bar)를 첨가해 나가면서 즉흥연주가 진행된다.

리코더(Recorder)는 두 번째로 소개되는 악기로서, 리코더의 연주를 통해서 절대음의 이름을 배운다. 피아노의 학습은 아동들이 ‘노래부르기’를 통해 음악적 기호를 먼저 읽을 수 있고 기초가 되는 지식을 획득할 때까지는 뒤로 미루어야 한다(정성배, 2003, p. 93)고 주장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초등학생은 한국의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한국사회교육원 음악교육센터에서 만 7~8세 아동 16명과 15명을 각각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선정하였다.

2. 연구도구

1) 검사도구

창의성 검사는 4세~8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전경원(1998)의 종합 창의성 모델을 사용하였다. 이 종합 창의성 모델은 창의성 측정에 있어 주요 척도인 유창성, 독창성, 상상력, 융통성을 측정하게 개발되었다.

이 검사도구는 언어, 도형, 신체 영역에서의 창의성 측정을 위한 4개의 소검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체적인 창의성의 경우 동물 상상하기와 색다른 나무치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언어와 도형은 각각 1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창의성 검사에 있어 빨간색 연상하기는 빨간색을 보고 연상되는 생각, 느낌, 물건들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러한 연상활동은 창의력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도형창의성 검사에 있어 도형 완성하기는 영어의 S자와 같은 태극무늬의 가운데 선을 선정하여 제시된 이 S자의 선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그림을 완성하도록 유도하여 창의성을 측정한다.

신체창의성 검사에 있어 동물 상상하기는 전래동화에 등장하는 5가지의 동물을 제시하고 이를 상상하여 신체로 표현하게 하여 그 표현정도에 따라 창의성을 측정한다. 색다른 나무치기는 창의나무 1을 세워 두고 신체를 이용

하여 얼마나 독특한 방법으로 창의나무 2로 옮겨가 쓰러뜨리는가에 따라 창의성을 측정하게 된다.

2) 평가방법

위의 각각의 검사 빨간색 연상하기, 도형 완성하기, 동물 상상하기, 색다른 나무치기는 독창성, 상상력, 유창성, 융통성의 4가지 척도에 따라 평가를 하여 검사 기록지에 기록한다.

독창성 점수는 전체 실험대상 중 6% 이하가 응답한 반응은 1점, 그 외 7% 이상의 답변율을 보인 응답은 0점을 부여하는데, 신체의 경우는 3%를 기준 한다. 소 검사별로 제시된 표를 기준 하여 독창성 0점 반응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1점을 부여한다. 상상력 점수는 반응 정도에 따라 0점에서 3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한다. 유창성의 경우 적절한 반응의 경우 1점을 부여한다. 융통성의 경우 각 범주 별로 1점을 부여하는데, 소 검사별로 제시된 표를 참조하여 융통성 범주를 확인하여 한 번 나온 범주에는 다시 점수가 부여되지 않는다.

3. 연구절차

연구대상 초등학생들의 사전 창의성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는 2002년 3월 28일과 29일 이틀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실험기간은 2002년 4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로 매주 4회씩 10주 동안 1회에 30분씩 총 40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이 기간동안 실험집단에게는 코다이 음악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실험 후 창의성을 측정하기 위한 사후검사는 2002년 6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되었다.

4. 음악교육프로그램

<표 III-1> 코다이 음악교육활동 프로그램

주	회차	주제	지도목표 및 내용	준비물
1	1	계이름 부르기	계이름의 사용을 간소화하기 위해 계이름 머리글자만 사용(d, r, m, f, s, l, t)	피아노 음정지시봉
	2		(s, m), (l, s, m), (m, r, d)의 순서로 음정 부르기	
	3		음정 지시봉을 사용하여 음정 읽기	
	4		전래동요 부르기(반가워요, 봄)	
2	5	이동 도법	도(d)의 위치를 바꾸어 계명을 읽는다(조의 특성과 화성적 구조의 이해에 도움을 준다)	음정사다리 음정기둥 음정계단 피아노
	6		(s, m, r, d), (l, s, m, r, d), (l, s, m, r, d, l)의 순서로 음정 부르기	
	7		음정 사다리, 음정기둥, 음정계단 등을 이용해 이동도법과 음정을 이해한다	
	8		전래동요 부르기(봄, 웃놀이)	
3	9	리듬말 익히기	♪→따, ♫→띠띠, ○→따야 등의 리듬말 부르기	오선지 피아노 리듬카드
	10		박수로 지도(교사먼저 박수, 다같이 박수, 노래와 책상·손가락 사용)	
	11		리듬말에 따라 받아 적기	
	12		전래동요부르기(웃놀이, 잠자리)	
4	13	손과 신체 기호	효과적인 시창을 위하여 손과 신체를 이용하여 계이름의 명칭을 익힌다	손기호 카드 오선지 의자
	14		3도와 5도 음계를 손기호를 사용하여 부른다	
	15		손기호에 따라 음계를 받아적는다	
	16		전래동요 부르기(잠자리, 우리식구 별명)	
5	17	리듬 교육	리듬을 리듬말을 읽으면서 두드리기를 한다	피아노 리코더 멜로디언 리듬카드
	18		각 마디의 강박자만 두드리면서 리듬이름을 읽는다	
	19		일정한 오스티나토를 두드리면서 계이름을 읽는다	
	20		각 마디의 첫 음을 노래하거나 음정악기로 들려준다 제시된 노래의 첫 음으로 계이름을 부른다 계이름을 노래하며 노래의 리듬을 두드린다 각 마디의 강박을 두드린다 전래동요 부르기(우리식구별명, 세상달궁)	

주	회차	주제	지도목표 및 내용	준비물
6	21	리듬 응용 교육	음정이나 리듬을 교사와 학생들이 마다마다 번갈아 이어치기를 한다	리듬카드 피아노 리코더 타악기
	22		두드리는 리듬을 듣고 마디 수가 몇 마디인지를 알아내는 마디 지각 훈련을 한다	
	23		먼저 치는 리듬보다 한마디 또는 두 마디 뒤를 따라 리듬을 치는 리듬 캐논훈련을 한다	
	24		줄지어 서있는 학생들 중 맨 뒤 학생의 등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리듬전달 게임을 한다 여러 가지 리듬이 그려져 있는 카드를 이용하여 빠른 리듬반응과 암기력을 익힌다 전래동요 부르기(세상달궁, 팽팽 왕서방)	
7	25	음정 교육	정해진 리듬과 음정에 따라 손기호와 함께 노래로 불러본다	피아노 리코더 오선칠판
	26		악보의 시작하는 첫음의 높이를 바꾸어 불러본다	
	27		각마디를 리듬악기와 노래로 번갈아 불러본다	
	28		각마디 마다 독창, 음정악기, 합창, 중창, 마음속으로 부르기 등의 방법으로 노래 불러본다 전래동요부르기(팽팽 왕서방, 무말랭이)	
8	29	음 응용 교육	2파트로 나누어 한 파트는 앞에서부터, 다른 파트는 뒤에서부터 노래부른다	피아노 오선지 오선칠판
	30		곡조를 암기하여 여러음높이 및 게이름으로 부른다	
	31		절대음으로 암기하여 부른후 음정을 확인한다	
	32		제시하는 조성에 따라 오선보에 암보하여 적는다 전래동요부르기(무말랭이, 웃놀이2)	
9	33	다성부 훈련	2성부의 노래가운데 왼손은 아래성부, 오른손은 윗 성부를 두드린다	악보차트 리듬카드 책상 의자
	34		2성부로 나누어 음정악기와 중창, 합창 등의 여러 성부에 캐논과 같은 방법으로 부른다	
	35		눈감고 노래 따라 부르기	
	36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와는 다른 리듬카드의 제시에 따라 손뼉치기 노래가 진행되는 동안 지나간 한마디 리듬과 음정을 암기하여 박수로 표현한다(음정 손기호 사용) 반대로 박수 친 리듬과 음정을 암기하여 노래로 표현 전래동요 부르기(웃놀이2, 풍년놀이)	
10	37	즉흥 연주	첫마디는 같은 리듬과 같은 음정으로 노래한 후 각기 다른 리듬과 음정으로 부른후 마지막엔 같은 리듬과 음정으로 만난다(처음엔 1마디부터 시작한 후 점점 마디수를 늘린다)	피아노 오선지 오선칠판 리코더
	38		교사의 1마디 제시후 다음 마디의 창작시도(2마디, 3마디, 4마디 순으로)	
	39		전래동요부르기(풍년놀이, 대보름날)	
	40			

5. 자료처리

본 연구 문제의 검증을 위하여 다음의 자료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코다이 음악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집단과 적용하지 않은 비교집단 간의 창의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두 집단간의 사전 사후 t 검증을 실시한다.

이상의 자료처리를 위해 SPSS/PC+를 이용한다.

IV. 결과 해석

1. 유창성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사이의 사전·사후 유창성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1> 집단별 유창성 사전검사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p
실험집단	48.4500	4.48098	-1.224	0.229
비교집단	49.3500	4.15883		

* $p < 0.05$

위의 <표 IV-1> 집단별 유창성 사전검사결과에서 코다이 음악교수법을 적용하기 이전 유창성에 있어 사전 검사에서는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비교집단이 실험집단에 비해 0.9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준편차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이 각각 4.4과 4.1으로 실험집단의 개별 사전 점수값이 비교집단에 비해 평균값으로부터 더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의수준 0.05에서 비교집단과 실험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 집단별 유창성 사후검사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p
실험집단	50.5	4.7	1	0
비교집단	49.6	5.8		

* $p<0.05$

위의 <표 IV-2> 집단별 유창성 사후검사결과에 있어 평균값을 비교해 볼 때, 실험집단이 평균 50.5로 비교집단 49에 비해 0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전 사후 평균값을 비교해 볼 때, 실험집단의 평균값이 2.1 상승하였고 비교집단의 평균값은 0 상승하여 그 상승폭이 실험집단이 1.8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준편차는 실험집단이 4로 비교집단 5.8에 비해 1.1 낮아, 이는 실험집단의 개별점수가 비교집단의 개별점수에 비해 평균값에서 조금 더 가깝게 분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본 결과는 유의수준 0.05에서 코다이 음악 교수법을 적용한 실험집단과 기존의 음악교수법을 계속한 비교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독창성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사이의 사전·사후 독창성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3> 집단별 독창성 사전검사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p
실험집단	50	7.7	0	0
비교집단	49	6.1		

* $p<0.05$

위의 <표 IV-3> 집단별 독창성 사전검사결과에서 코다이 음악교수법을 적용하기 이전 독창성에 있어 사전 검사에서는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실험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0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준편차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이 각각 7과 6.1로 실험집단의 개별 사전 점수값이 비교집단에 비해 평균값으로부터 더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의수준 0.05에서는 비교집단과 실험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 집단별 독창성 사후검사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p
실험집단	52	6.7	3	0.002*
비교집단	50.8	6		

* $p < 0.05$

위의 <표 IV-4> 집단별 독창성 사후검사결과에 있어 평균값을 비교해 볼 때, 실험집단이 평균 52로 비교집단 50.8에 비해 1 높아 실험집단의 성취도가 보다 뛰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전 사후 평균값을 비교해 볼 때, 실험집단의 평균값이 2 상승하였고 비교집단의 평균값은 1 상승하여 그 상승폭이 실험집단이 1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준편차는 실험집단이 6으로 비교집단 6.4에 비해 0.3 낮아, 이는 실험집단의 개별점수가 비교집단의 개별점수에 비해 평균값에서 조금 더 멀리 분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본 결과는 유의수준 0에서 코다이 음악교수법을 적용한 실험집단과 기존의 음악교수법을 계속한 비교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3. 상상력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사이의 사전·사후 상상력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5> 집단별 상상력 사전검사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p
실험집단	50	5.0	1	0.067
비교집단	49	4		

* $p<0.05$

위의 <표 IV-5> 집단별 상상력 사전검사결과에서 코다이 음악교수법을 적용하기 이전 상상력에 있어 사전 검사에서는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실험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1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준편차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이 각각 5와 4로 실험집단의 개별 사전 점수값이 비교집단에 비해 평균값으로부터 더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본 결과는 유의수준 0.05에서 비교집단과 실험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 집단별 상상력 사후검사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p
실험집단	52.9	5.7	5.0	0
비교집단	50	5		

* $p<0.05$

위의 <표 IV-6> 집단별 상상력 사후검사결과에 있어 유의수준 0.05에서 코다이 음악교수법을 적용한 실험집단과 기존의 음악교수법을 계속한 비교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균값을

비교해 볼 때, 실험집단이 평균 52.9로 비교집단 50에 비해 2 높아 실험집단의 성취도가 보다 뛰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전 사후 평균값을 비교해 볼 때, 실험집단의 평균값이 2 상승하였고 비교집단의 평균값은 0.3 상승하여 그 상승폭에 있어 실험집단이 1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준편차는 실험집단이 5로 비교집단 5.8에 비해 0 높아, 이는 실험집단의 개별점수가 비교집단의 개별점수에 비해 평균값에서 조금 더 멀리 분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는 하나 큰 차이는 없다.

4. 융통성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사이의 사전·사후 융통성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7> 집단별 융통성 사전검사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p
실험집단	48.8	4.1	-	1.000
비교집단	48.8	4.1		

* $p<0.05$

위의 <표 IV-7> 집단별 융통성 사전검사결과에서 코다이 음악교수법을 적용하기 이전 상상력에 있어 사전 검사에서는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비교집단과 실험집단이 동일한 값을 알 수 있다. 표준편차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이 각각 4.1과 4.1로 실험집단의 개별 사전 점수값이 비교집단에 비해 평균값으로부터 더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큰 차이는 거의 없다. 그러나, 유의수준 0.05에서는 비교집단과 실험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 집단별 융통성 사후검사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p
실험집단	50	5	1.8	0.07
비교집단	49.1	4		

* $p < 0.05$

위의 <표 IV-8> 집단별 융통성 사후검사결과에 있어 평균값을 비교해 볼 때, 실험집단이 평균 50.4로 비교집단 49.1에 비해 1.3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전 사후 평균값을 비교해 볼 때, 실험집단의 평균값이 1.6500 상승하였고 비교집단의 평균값은 0.3 상승하여 그 상승폭이 실험집단이 1.3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준편차는 실험집단이 5로 비교집단 4에 비해 1.2 높아, 이는 실험집단의 개별점수가 비교집단의 개별점수에 비해 평균값에서 조금 더 멀리 분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본 결과는 유의수준 0.05에서는 코다이 음악교수법을 적용한 실험집단과 기존의 음악교수법을 계속한 비교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V. 논의 및 제언

1. 논의

본 연구는 코다이의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창의성 계발을 위한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러한 코다이 음악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창의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 보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다이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후의 유창성 사전 사후 평균값을 비교해 볼 때, 실험집단 초등학생의 유창성 검사점수 평균값이 2 상승하였고 비교집단 초등학생의 평균값은 0 상승하여 실험집단이 1 높아 실험집단의 유창성 성취도가 뛰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사전검사에서 실험집단 과 비교집단의 유창성 검사 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코다이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의 사후검사에서 도 역시 두 집단 사이 유창성 검사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실험집단 유창성 사후검사 점수는 평균 50.5($SD=4.70062$)으로 비교집단의 평균 49.6($SD=5.8$)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코다이의 음악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유창성을 의의 있게 향상시키지는 못하였다.

둘째, 코다이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의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독창성 검사 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사후검사에서 두 집단 사이의 독창성 검사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실험집단의 독창성 사후검사 점수는 평균 52.5($SD=6.7$)로 비교집단의 평균 50($SD=6$)에 비해 1.6 의의 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코다이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의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상상력 검사 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사후검사에서 두 집단 사이의 상상력 검사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실험집단의 상상력 사후검사 점수는 평균 52.9($SD=5.7$)로 비교집단의 평균 5.0($SD=5$)에 비해 2.9 의의 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코다이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후의 융통성 사전 사후 평균값을 비교해 볼 때, 실험집단의 융통성 평균값이 1.6 상승하였고 비교집단의 평균값은 0.3 상승하여 그 상승폭이 실험집단이 1 높아 실험집단의 융통성 성취도가 뛰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사전검사에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융통성 검사 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사후검사에서 도 역시 두 집단 사이의 융통성 검사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실험집단의 융통성 사후검사 점수는 평균

50.4(SD=5.3)로 비교집단의 평균 49.1(SD=4)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코다이 음악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융통성을 유의 있게 향상시키지는 못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는 코다이의 음악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창의성에 있어 유창성·상상력은 숫자상으로는 향상되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 원인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코다이 음악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유창성과 상상력을 개발하는데 적절하지 못했거나, 유창성과 상상력 측정에 있어 언어적 방법에 치우쳐 그 검사 방법이 적절하지 못했을 경우도 참고할 수 있으며, 10주간에 걸친 프로그램 적용기간이 초등학생의 유창성과 상상력을 개발하는데 짧은 기간일 수 있다는 본 연구의 한계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독창성·융통성은 숫자상은 물론이고 통계적으로도 유의 있게 향상되었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김은주의 연구(김은주, 2001, pp. 43-44)에서 “통합적 음악활동이 아동의 일반적 융통성 계발에 유의있는 영향을 미쳤다”는 것과 동일한 결과이며, 류숙희의 “Orff의 음악·언어·동작의 삼위일체를 통한 음악교육이론과 지도방법을 통해 아동의 유창성을 향상시켰다”(류숙희, 1999. p. 52)는 결론과도 같다.

이기숙과 김영주의 연구(이기숙, 김영주, 1994, p. 51)에서 나타났듯이 “소리탐색, 느낌 말하기 등을 동화듣기와 같은 이야기 영역과 연결할 수 있고, 악기 만들기 등은 미술영역과 연결 할수도 있으며, 언어교육과 절대적인 음감을 유도하여 노래와 음을 창작하여 창의적인 발달을 돕는다”는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아동들의 다양한 활동 중에서도 “음악활동은 다른 활동에 비해 아동의 정서, 언어, 신체 그리고 인지발달과 같은 다양한 측면의 발달에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음악활동을 통해서 아동의 창의성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Vaughan & Meyers의 연구결과(Vaughan & Meyers, 1971, pp. 337-341)를 부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며, Leibowitz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는 “음악교육을 받은 대학생들은 일반적 창의성 및 학업성취의 모든 척도에서 유의한 증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음악적성의 발달에도 효

과가 있었다”고 주장한 연구결과(Leibowitz, 1978, pp. 53-56)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밖에도,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음악교육 훈련을 실시한 Gibson의 연구에서 “훈련을 받은 학생들은 음악적 창의성과 일반적인 창의성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증진이 있었다”는 결과⁶⁾를 입증해 주고 있으며, 본 연구와 같은 부류의 대상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음악교육 훈련을 실시한 결과 “일반적 창의성과 음악적 창의성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한 Auh의 연구⁷⁾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코다이의 음악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창의성 계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 문제의 타당성을 입증한 결과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초등학교 교육 현장 및 연구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음악교육 지도방법 개선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초등학생의 창의성 계발과 관련하여 새로운 교수법을 비롯한 기타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통한 음악교육 지도방법 개선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초등학교교육 현장에서 좀 더 효율적인 음악교육을 위한 환경 및 시설 개선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초등학생의 창의성 계발을 위한 음악교육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환경과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며, 또한 이들 개선을 위해서는 음악교육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6) Gibson, S. M., 전개논문, 1989, pp.3543-3544.

7) Auh, M. S., “Prediction of musical creativity in composition among selected variable for upper elementary students”, Doctoral Abstracts International, 56(10), 1996, p. 3875

참 고 문 헌

- 김태숙 (1996). 유아의 창의성 향상을 위한 음률교육모형 제작에 관한 연구 -오르프의 음악교육이론을 기초로 하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 류숙희 (1999). 칼 오르프의 음악교육프로그램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충신대학교.
- 박아청 (1992). 현대의 교육심리학. 서울: 학문사.
- 성진희 (1983). 미래의 피아노 교육의 방향. 피아노 음악 8.
- 이기숙, 김영주 (1994). 유아음악교육. 서울: 교문사.
- 이선숙 (1998). 활동중심의 음악교육이 음악적 창의력에 미치는 영향.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순천향대학교.
- 이흥수 (1990).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 세광사.
- 임선하 (1993). 창의성에의 초대. 서울: 교보문고.
- 유덕희. 음악교육학 개론. 서울: 학문사.
- 윤종건 (1993). 창의력: 이론과 실제. 서울: 정민사.
- 염현경 (2001). 창의적 표현을 위한 음률활동이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 배화논집 20.
- 조성연 (1984). 창의성검사의 타당화를 위한 연구 -Torrance 창의적 사고력 검사(TTCT)를 중심으로-.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조흥기 (1990). 코다이 음악교수법. 서울: 다라.
- 정성배 외 (2003). 대학음악개론. 서울: 양서원.
- 정성배 외 (2003). 유아와 아동을 위한 음악교육. 서울: 양서원.
- 천신현 (1989). 오르프 음악활동이 아동의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Andress, B. (1973). *Music in Early Child*. Washington D.C: Music Educators National Conference.
- Auh, M. S. (1996). Prediction of musical creativity in composition among selected variable for upper elementary students. *Doctoral*

- Abstracts International*, 56(10).
- Gibson, S. M. (1989). A comparison of music and multiple arts experience in the development of creativity in middle school students. *Doctoral Abstracts International*, 49(12).
- Guilford, J. P. (1967) *The nature of Human Intelligence*. New York: Mcgraw Hill.
- Leibowitz, L. (1978). *The relationship of continuation in applied music study in four New York City High School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 Moore, J. (1990). Creativity thinking in music; Strategies for fostering creative thinking. *Music Educators Journal*, 76(9).
- Moorehead, G. E. & Pond, D. (1942). *Music of Young Children*. Santa Barbara: Pillsbury Foundation Studies.
- Pagano. (1979) Learning and Creativity, *Journal of Creativie Behavior*.
- Squeglia, C. A. (1994). *The effect of creation musical activities on general creativity. musical creativity. high level thinking and self concept of fifth grad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Lowell.
- Tarratus, E. A. (1964). *Creative processes in music and the identification of creative music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Ohio State University.
- Torrance, E. P. (1979) *The Search for Satori and Creativity*. New York: Creative Education Foundation.
- Vaughan, M. M. & Meyers, R. E. (1971) An Examination of Musical Processes as Related to Creative Thinking,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19(3).
- Wang, C. (1985) *Measures of creativity in sound and music*, Unpublished manuscript.
- <http://kordaly.co.kr>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s of Kodály Music Method to the Development of Creativi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ong Bae, Je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at a effect of the Kodaly music program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s creativity. To achieve the purpose, I have run parallel with both of the literature study and empirical study. In order to test the questions, randomly sampled out from 2 elementary students music institution (city G, Korea) were 31 Children aged 7~8 in total, including 16 experimental group members and 15 control group members.

The instrument for testing the musical creativity was Wang(1985)'s MCSM(measures of creativity in sound and music) for children. For 2 days(July. 14th~15th 2003), I pretested creativity for experimental group members and control group members respectively. The experiment was done for 4 weeks(July. 21st 2003~August. 16th 2003), 4 times a week. The experiment group was conducted with Zoltan Kodaly's music education program. After experiment, post examination was conducted for 2 days(August. 18th~19th 2003).

The collected data were processed by t-test and the results which the comparison analyzes to a research problem are as follows; First. the Kodaly music education programs have an influence on a general

originality of the children($p<0.05$) Second, the Kodaly music education programs have an influence on a general imagination of the children($p<0.05$). Third, the Kodaly music education programs have not an influence on a general fluency of the children($p<0.05$). Forth, the Kodaly music education programs have not an influence on a flexibility of the children.($p<0.05$)

To conclude, Kodaly Music Education Program is effective to elementary school students's creativity.